



보도시점 2023. 11. 8.(수) 10:00 배포 2023. 11. 8.(수) 10:00

동남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이주의사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중심으로 -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이희길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심채연 (051-850-3360)
		담당자	주무관	이하영 (051-850-3364)

일 러 두 기

□ 분석배경 및 목적

- 우수한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지역인재와 청년층이 대학과 직장을 따라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자본 축적의 격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 이에 동남지방통계청은 최근 9년간 대학 진학 시기와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시기의 청년 유출에 대한 이동을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이동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동남권 청년의 이주의사를 살펴보았음

□ 분석자료 및 범위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분석내용	기준시점
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청년인구 지역별 비중	2000-2022
2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인구 순이동(전입-전출) · 주요 유출 지역, 전출사유	2013-2022
3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	한국고용정보원	· 1차 유출, 2차 유출, 회귀의 단계별 인구 이동 규모 · 유출 지역 및 집단 특성	2012-2020
4	부산·울산·경남 사회조사	지방자치단체	· 이주계획, 이주 희망지역 · 이주(혹은 계속 거주) 이유	2022

□ 분석대상

- 청년층은 19~39세로 정의함(울산, 경남의 청년 기본 조례 기준을 따름)
- 권역은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등으로 구분함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의 연도는 조사연도를 의미하며, 조사대상은 대학 졸업 후 약 18개월이 지난 대졸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예) 기준시점이 2020년(2019GOMS)인 자료의 조사대상은 2018년 8월, 2019년 2월 졸업자임

일 러 두 기

□ 용어정의

○ 이동의 정의

구분	자료명	유출의 정의
1	국내인구이동통계, GOMS	동남권 → 동남권 외 이동
2	부산·울산·경남 사회조사	현재 시도 → 현재 시도 외 이동

* 지역 사회조사 문항 분석의 한계로 이동의 정의가 상이함

○ 국내인구이동통계

- 순이동: 전입과 전출의 차이(전입-전출)
- 순이동률: 해당연도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순이동자 수
* 연앙인구인 「(해당기간초 주민등록인구 + 해당기간말 주민등록인구)/2」를 사용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 1차 유출, 2차 유출 및 회귀의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의함

구분	고등학교 소재지	대학교 소재지	현재 거주지	결과
1	동남권	타권역	-	1차 유출
2	-	동남권	타권역	2차 유출
3	동남권	타권역	동남권	회귀

□ 이용시 주의사항

- 전출입 신고자료 이동사항의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사실상의 이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사자료 통계표의 수치는 표본에서 관찰된 값에 가중값을 적용하여 분석한 추정값임
- 일부 통계표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숫자 없음
- 이 자료는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dn>)에 게시함

동남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이주 의사

I. 동남권 청년인구 유출 (장래인구추계·국내인구이동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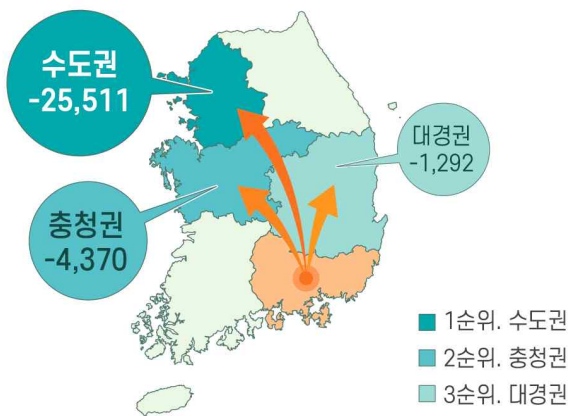
청년인구 지역별 비중 (2000~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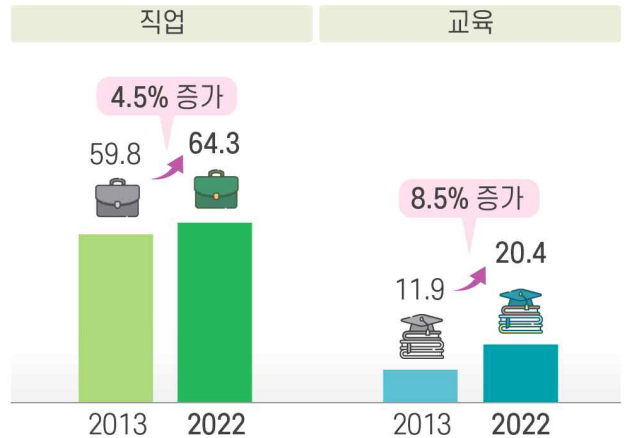
청년인구 순이동(전입-전출) (2013~2022년) (단위: 명, %)



주요 유출 지역 (2022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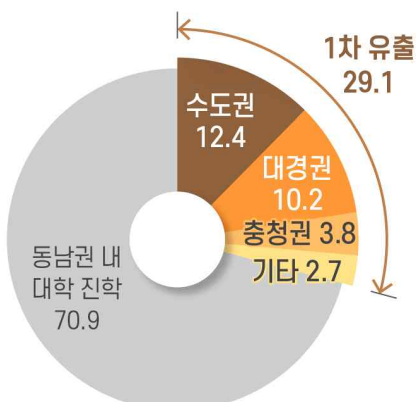
전출 사유 (2013, 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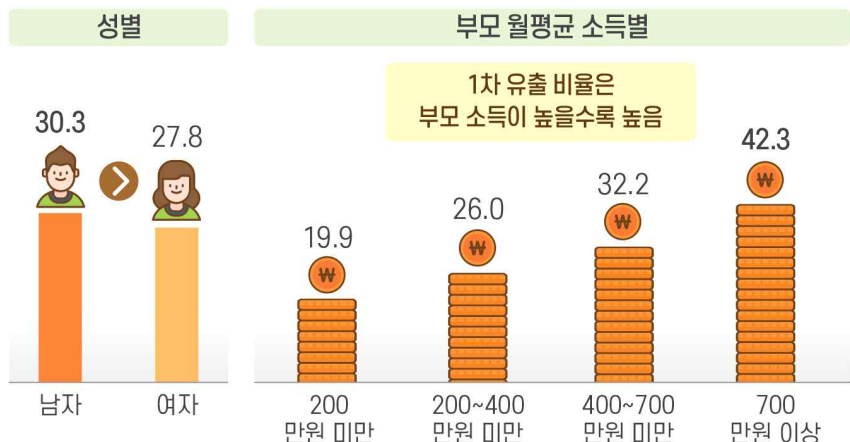
II. 동남권 대졸 청년 유출과 특성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20년 기준)



1차 유출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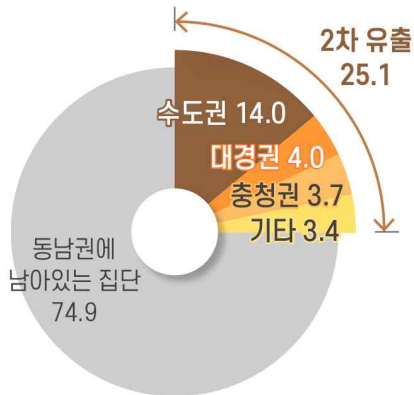


1차 유출 집단 특성 (유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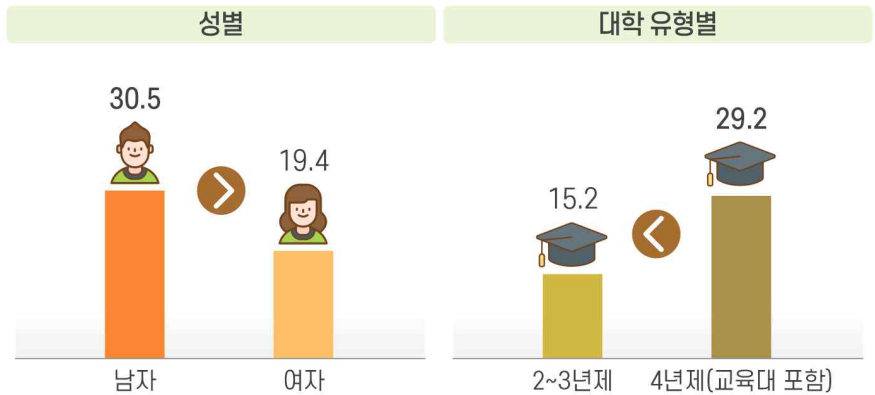
2차 유출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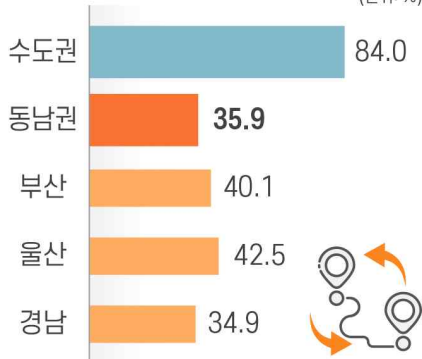
2차 유출 집단 특성 (유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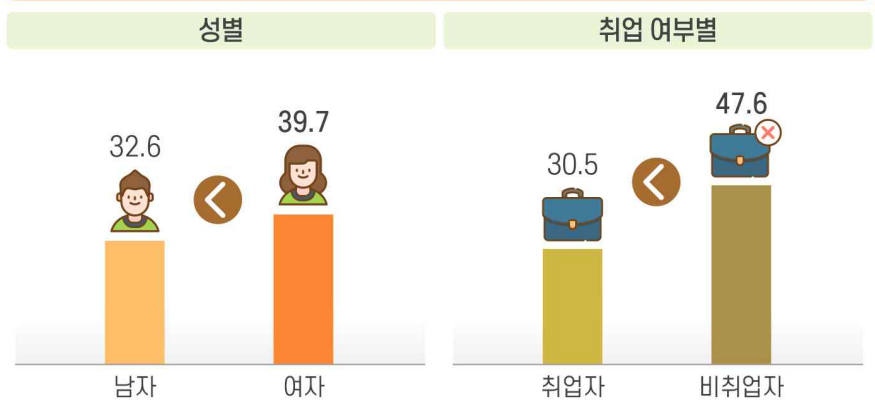
권역별 1차 유출자의 회귀 비율

(단위: %)



동남권 회귀 집단 특성 (회귀 비율)

(단위: %)



III. 동남권 청년의 향후 이주 의사 (부·울·경 사회조사, 2022년)

이주계획 여부 및 이주시기

(단위: %)



이주 희망지역

(단위: %)



이주하려는 이유

(단위: %)



현재 시도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단위: %)



목 차

□ 요약	1
I. 동남권 청년인구 유출	
1. 청년인구 지역별 비중	3
2. 청년인구 순이동	4
3. 주요 유출 지역	5
4. 전출 사유	6
II. 동남권 대졸 청년 유출과 특성	
1. 대학 진학 시기의 1차 유출	
1-1. 1차 유출 규모	7
1-2. 1차 유출 지역	8
1-3. 1차 유출 집단 특성	10
2. 취업 시기의 2차 유출	
2-1. 2차 유출 규모	11
2-2. 2차 유출 지역	12
2-3. 2차 유출 집단 특성	14
3. 1차 유출자의 역내 회귀	
3-1. 회귀 비율	16
3-2. 회귀 집단 특성	17
III. 동남권 청년의 향후 이주 의사	
1. 이주계획 여부 및 이주시기	19
2. 이주 희망지역	20
3. 이주하려는 이유	21
4. 현재 시도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22

동남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이주 의사(요약)

I 동남권 청년인구 유출 (국내인구이동통계)

1. (청년인구 지역별 비중) '22년 청년인구(19~39세)의 동남권 비중은 13.5%로, '00년(16.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 (청년인구 순이동) '22년 동남권 청년의 이동은 순유출(-31,969명)이 발생하였으며, 순유출 규모는 '15년(-8,748명)에 비해 4배 정도 증가
3. (주요 유출 지역) '22년 동남권 청년은 모든 권역으로 순유출되었으며, 수도권(-25,511명), 충청권(-4,370명), 대경권(-1,292명) 순임
4. (전출 사유) '22년 동남권 청년의 전출 사유는 직업(64.3%)과 교육(20.4%)이 84.7%를 차지함

II 동남권 대졸 청년 유출과 특성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 대학 진학 시기의 1차 유출
 - (유출 규모)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동남권 내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권역 대학에 진학한 1차 유출자는 22,534명(29.1%)이며, 2명 중 1명은 수도권으로 유출됨
 - (유출 지역) 유출 지역은 수도권(12.4%), 대경권(10.2%), 충청권(3.8%) 순임
 - (유출 집단 특성) 동남권 청년 중 '남자', '특수목적고·자율고', '4년제 대학', '부모가 고소득'일수록 1차 유출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

2. 취업 시기의 2차 유출

- (유출 규모)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동남권 내 대학 졸업 후 취업 시기에 타권역으로 이동한 2차 유출자는 16,113명(25.1%)이며, 3명 중 2명은 수도권으로 유출됨
- (유출 지역) 유출 지역은 수도권(14.0%), 대경권(4.0%), 충청권(3.7%) 순임
- (유출 집단 특성) 동남권 청년 중 '남자', '4년제 대학', '국공립 대학', '취업자' 일수록 2차 유출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
 - (취업자 특성) 동남권 청년 중 취업자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2차 유출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

3. 1차 유출자의 역내 회귀

- (회귀 비율)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동남권에서 1차 유출된 청년이 타권역 대학을 졸업 후 동남권으로 회귀하는 비율은 35.9%에 그치는 반면, 수도권은 84.0%에 달함
- (회귀 집단 특성) 1차 유출자 중 동남권으로 회귀한 청년의 특성을 보면, '여자', '2~3년제 대학', '국공립 대학', '비취업자'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
 - (취업자 특성) 1차 유출자 중 동남권으로 회귀해서 취업한 청년의 특성을 보면, '사업체 규모 30~299명 이하',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원 미만'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

Ⅲ

동남권 청년의 향후 이주 의사 (부·울·경 사회조사)

1. (이주계획 여부 및 이주시기) 동남권 청년의 5명 중 1명은 이주계획이 있으며, '2~4년 후'에 이주하려는 청년이 42.3%로 가장 많음
2. (이주 희망지역) 동남권 청년이 이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수도권(49.7%)이 가장 많고, 동남권 내(32.5%), 대경권(6.6%) 순임
3. (이주 이유) 이주 의사가 있는 동남권 청년이 타 시도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대부분이 직업(62.0%) 때문이고, 다음으로 교육(10.9%), 문화여가(10.1%) 순임
4. (계속 거주 이유) 이주 의사가 없는 동남권 청년이 현재 시도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도 직업(46.5%)이 가장 중요했고, 이주 이유와는 달리 가족·친구(35.2%)가 높게 나타남

동남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이주 의사

I. 동남권 청년인구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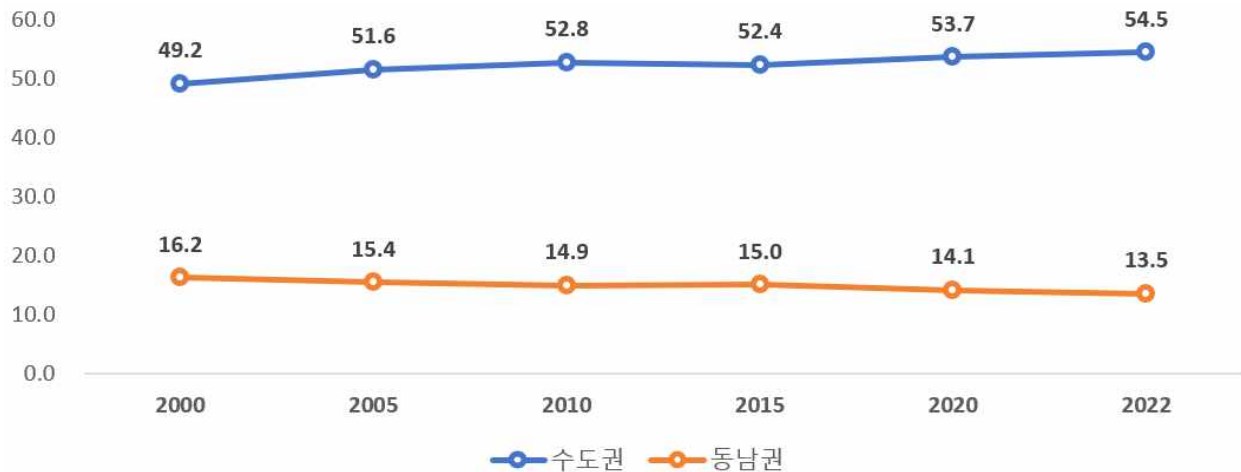
1. 청년인구 지역별 비중

'22년 청년인구(19~39세)의 동남권 비중은 13.5%로,
'00년(16.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22년 청년인구의 동남권 비중은 13.5%로, 부산 6.0%, 울산 2.0%, 경남 5.4%를 차지함
- '00년 대비 '22년 동남권의 청년인구 비중은 2.7%p 감소한 반면, 수도권의 청년인구 비중은 5.3%p 증가하여 청년인구 비중 격차 증가

[그림 I-1] 청년인구 지역별 비중, 2000-2022

(단위: %)



[표 I-1] 청년인구 지역별 비중, 2000-2022

(단위: %, %p)

	2000	2005	2010	2015	2020	2022	증감 (‘00년 대비)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도권(A)	49.2	51.6	52.8	52.4	53.7	54.5	5.3
동남권(B)	16.2	15.4	14.9	15.0	14.1	13.5	-2.7
부산	7.8	7.2	6.7	6.5	6.1	6.0	-1.8
울산	2.3	2.2	2.2	2.3	2.1	2.0	-0.3
경남	6.1	6.0	6.1	6.1	5.8	5.4	-0.6
차이(B-A)	-33.0	-36.2	-37.9	-37.4	-39.6	-41.0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0-2022)」

주) 청년인구 지역별 비중 = 지역 청년인구 / 전국 청년인구 × 100

2. 청년인구 순이동

‘22년 동남권 청년의 이동은 **순유출(-31,969명)**이 발생하였으며,
순유출 규모는 ‘15년(-8,748명)에 비해 **4배 정도 증가**

□ ‘22년 동남권 청년의 이동은 **순유출(-31,969명)**이 발생하였으며, 순이동률은 **-1.7%**로 나타남

- 순유출자 수는 ‘13년 대비(-11,014명) ‘22년(-31,969명)이 20,955명 더 많음
- 청년인구의 유출 속도는 ‘15년(-8,748명) 이후 유출이 가속화되었다가 ‘18년(-31,876명) 이후 둔화되는 추세임

[그림 I-2] 청년인구 순이동, 2013-2022



[표 I-2] 청년인구 순이동, 2013-2022

(단위: 명, %)

연도	순이동자 수(명)						순이동률(%)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2013	-11,014	-11,249	2,310	-2,075	4,317	28.2	-0.5	-1.1	0.7	-0.2	0.2	
2014	-8,598	-8,687	2,240	-2,151	2,416	21.9	-0.4	-0.9	0.6	-0.2	0.1	
2015	-8,748	-7,393	792	-2,147	-150	-1.7	-0.4	-0.7	0.2	-0.2	0.0	
2016	-19,047	-9,682	-3,381	-5,984	-10,299	-117.7	-0.8	-1.0	-1.0	-0.7	-0.5	
2017	-25,532	-12,083	-6,334	-7,115	-6,485	-34.0	-1.2	-1.3	-1.8	-0.8	-0.3	
2018	-31,876	-13,429	-7,219	-11,228	-6,344	-24.8	-1.5	-1.4	-2.1	-1.3	-0.3	
2019	-31,476	-11,784	-6,079	-13,613	400	1.3	-1.5	-1.3	-1.9	-1.6	0.0	
2020	-33,353	-5,901	-7,658	-19,794	-1,877	-6.0	-1.6	-0.7	-2.4	-2.4	-0.1	
2021	-33,108	-7,171	-7,263	-18,674	245	0.7	-1.7	-0.8	-2.4	-2.4	-0.1	
2022	-31,969	-6,115	-5,530	-20,324	1,139	3.4	-1.7	-0.7	-1.9	-2.7	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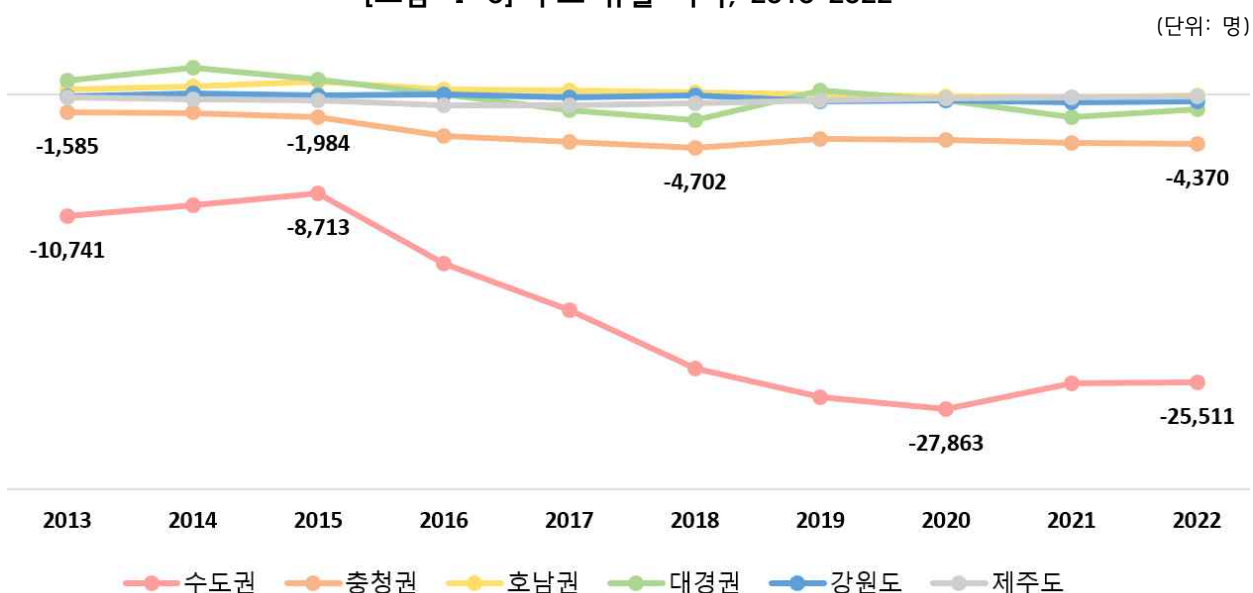
3. 주요 유출 지역

‘22년 동남권 청년은 모든 권역으로 순유출되었으며,
수도권(-25,511명), 충청권(-4,370명), 대경권(-1,292명) 순임

□ ‘22년 동남권 청년은 모든 권역으로 순유출되었으며, 유출 지역은 수도권 (-25,511명), 충청권(-4,370명), 대경권(-1,292명) 순임

- ‘15년 이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의 순유출 규모가 증가함

[그림 I -3] 주요 유출 지역, 2013-2022



[표 I -3] 주요 유출 지역, 2013-2022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014	-8,598	-8,748	-19,047	-25,532	-31,876	-31,476	-33,353	-33,108	-31,969
수도권	-10,741	-9,777	-8,713	-15,006	-19,133	-24,224	-26,802	-27,863	-25,613	-25,511
충청권	-1,585	-1,606	-1,984	-3,638	-4,176	-4,702	-3,959	-4,013	-4,264	-4,370
호남권	484	719	1,157	489	337	158	-20	-139	-260	-59
대경권	1,212	2,382	1,352	59	-1,359	-2,240	400	-501	-2,038	-1,292
강원도	-158	129	-62	-16	-271	-103	-586	-528	-675	-574
제주도	-226	-445	-498	-935	-930	-765	-509	-309	-258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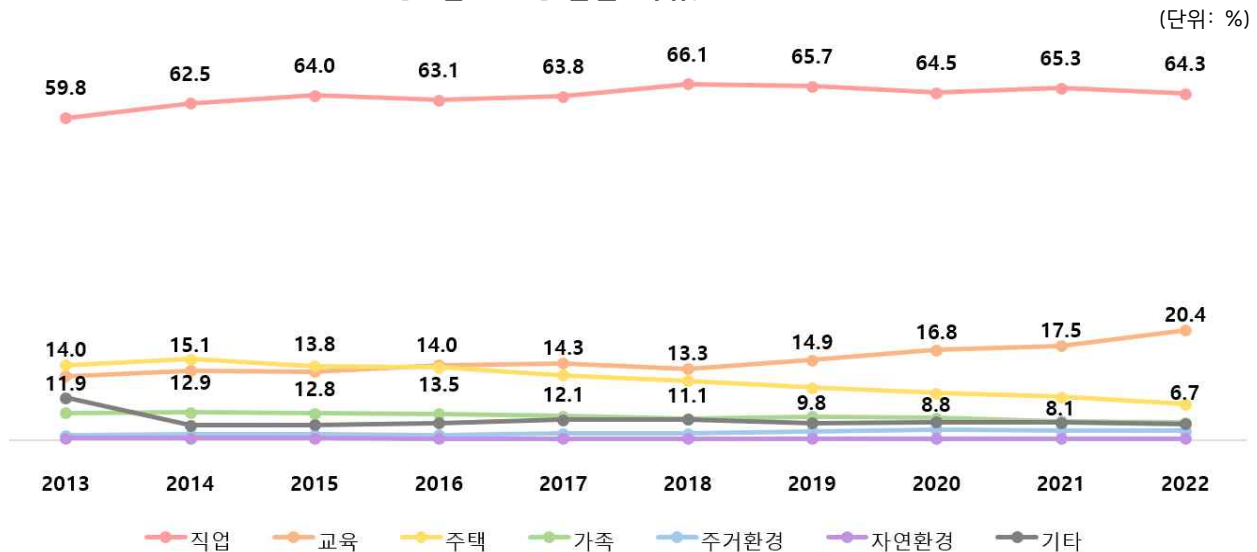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3-2022)」

4. 전출 사유

‘22년 동남권 청년의 전출 사유는 직업(64.3%)과 교육(20.4%)이 84.7%를 차지함

- ‘22년 동남권 청년의 전출 사유는 직업과 교육이 84.7%를 차지함
 - ‘22년 동남권 청년의 전출 사유는 직업이 64.3%로 ‘13년 대비 4.5%p 증가
 - ‘22년 교육은 20.4%로 ‘13년 대비 8.5%p 증가했으며, 주택은 6.7%로 ‘13년 대비 7.3%p 감소함
- ‘13년 이후 직업과 교육에 의한 전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택으로 인한 전출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I -4] 전출 사유, 2013-2022



[표 I -4] 전출 사유, 2013-2022

(단위: %)

연도	전출 사유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2013	100.0	59.8	5.1	14.0	11.9	0.9	0.4	7.9
2014	100.0	62.5	5.2	15.1	12.9	1.1	0.4	2.8
2015	100.0	64.0	5.0	13.8	12.8	1.1	0.4	2.9
2016	100.0	63.1	4.9	13.5	14.0	1.0	0.3	3.2
2017	100.0	63.8	4.5	12.1	14.3	1.3	0.3	3.8
2018	100.0	66.1	4.0	11.1	13.3	1.3	0.3	3.9
2019	100.0	65.7	4.4	9.8	14.9	1.7	0.3	3.2
2020	100.0	64.5	4.2	8.8	16.8	2.0	0.3	3.4
2021	100.0	65.3	3.6	8.1	17.5	1.9	0.3	3.3
2022	100.0	64.3	3.3	6.7	20.4	1.8	0.3	3.1
증감('13년대비)	-	4.5	-1.8	-7.3	8.5	0.9	-0.1	-4.8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3-2022)」

주) 세대주 이동(건수) 기준, 동남권 외 전출만 집계

II. 동남권 대졸 청년 유출과 특성

1. 대학 진학 시기의 1차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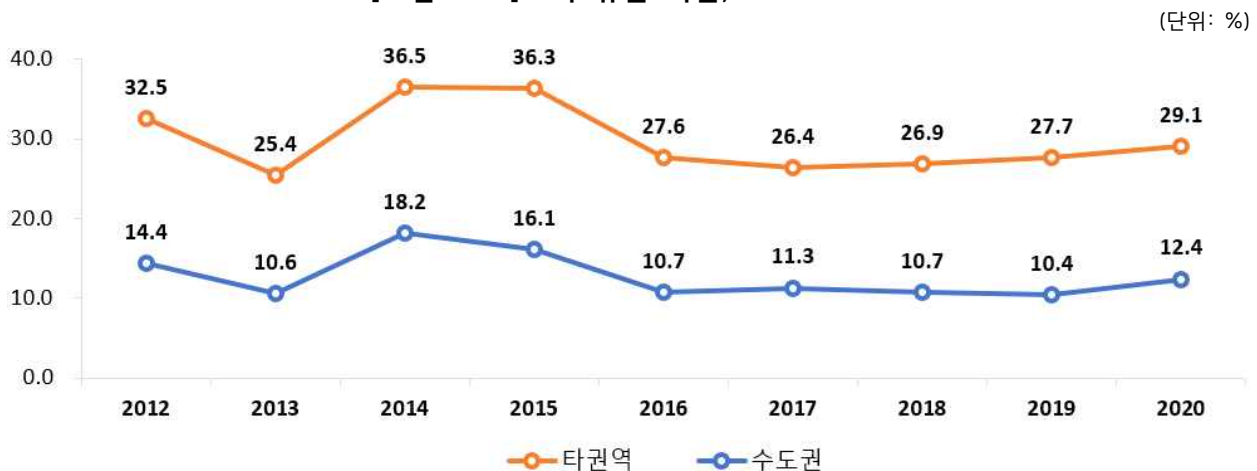
1-1. 1차 유출 규모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동남권 내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권역 대학에 진학한 1차 유출자는 22,534명(29.1%)이며, 2명 중 1명은 수도권으로 유출됨

□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동남권 내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권역 대학에 진학한 1차 유출자는 22,534명(29.1%)임

- 지난 9년간 동남권 대졸 청년 중 29.7%는 타권역으로 1차 유출되며, 그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12.7%로 가장 많음
- 동남권에서 타권역으로 1차 유출된 청년 2명 중 1명은 수도권으로 이동함

[그림 II-1] 1차 유출 비율, 2012-2020



[표 II-1] 1차 유출 규모, 2012-2020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전체	77,717 (100.0)	77,335 (100.0)	78,861 (100.0)	80,684 (100.0)	82,512 (100.0)	89,573 (100.0)	88,535 (100.0)	79,522 (100.0)	77,421 (100.0)	732,160 (100.0)
동남권 내 대학 진학	52,477 (67.5)	57,705 (74.6)	50,100 (63.5)	51,402 (63.7)	59,744 (72.4)	65,908 (73.6)	64,757 (73.1)	57,528 (72.3)	54,887 (70.9)	514,508 (70.3)
타권역 대학 진학 (1차 유출)	25,240 (32.5)	19,631 (25.4)	28,760 (36.5)	29,282 (36.3)	22,768 (27.6)	23,665 (26.4)	23,778 (26.9)	21,994 (27.7)	22,534 (29.1)	217,652 (29.7)
수도권	11,163 (14.4)	8,171 (10.6)	14,385 (18.2)	13,018 (16.1)	8,798 (10.7)	10,087 (11.3)	9,441 (10.7)	8,283 (10.4)	9,574 (12.4)	92,920 (12.7)
대경권	7,644 (9.8)	6,286 (8.1)	7,324 (9.3)	8,424 (10.4)	8,416 (10.2)	8,062 (9.0)	8,216 (9.3)	8,908 (11.2)	7,870 (10.2)	71,150 (9.7)
충청권	3,525 (4.5)	3,360 (4.3)	4,408 (5.6)	4,460 (5.5)	2,998 (3.6)	3,133 (3.5)	4,182 (4.7)	2,576 (3.2)	2,962 (3.8)	31,604 (4.3)
기타	2,908 (3.7)	1,813 (2.3)	2,643 (3.4)	3,380 (4.2)	2,556 (3.1)	2,382 (2.7)	1,939 (2.2)	2,227 (2.8)	2,128 (2.7)	21,976 (3.0)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각 연도

주) 1차 유출 비율 = (동남권 내 고등학교 졸업 후 A지역 대학을 진학한 학생 수) / (동남권 내 고등학교 졸업자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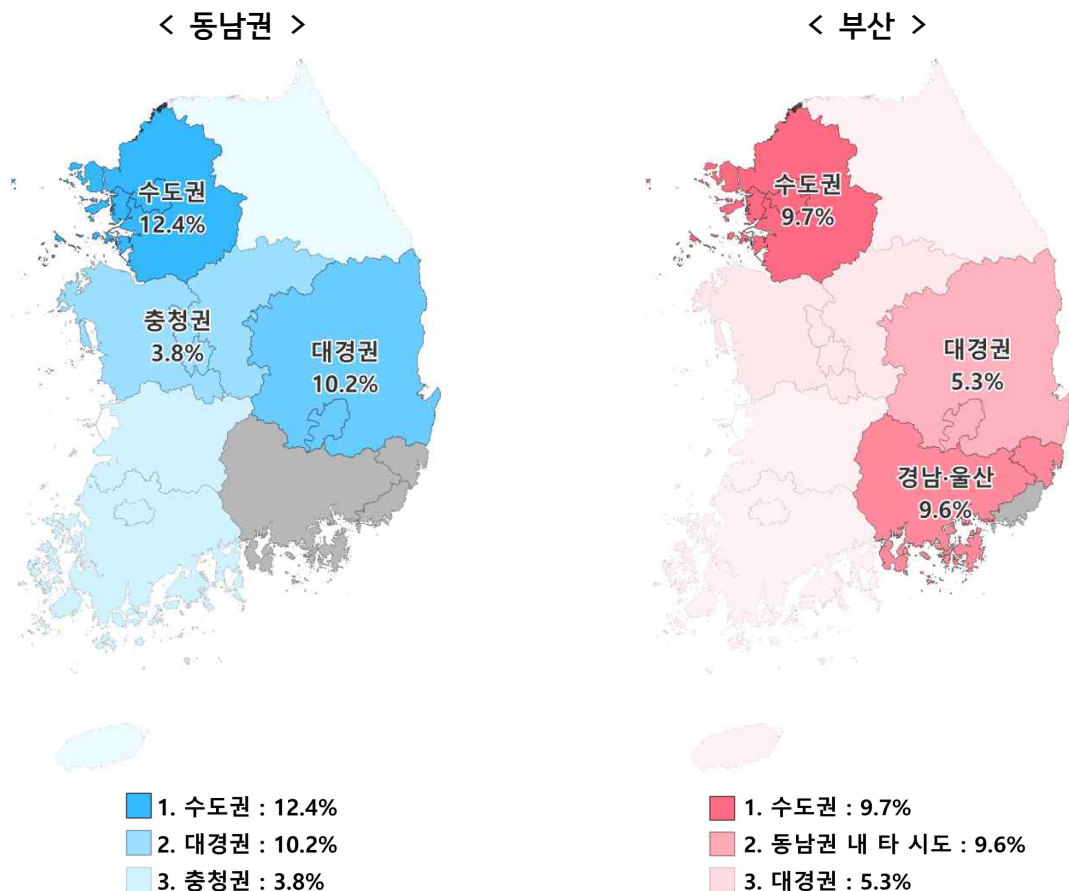
1-2. 1차 유출 지역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동남권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대학 진학 시 수도권(12.4%), 대경권(10.2%), 충청권(3.8%) 순으로 1차 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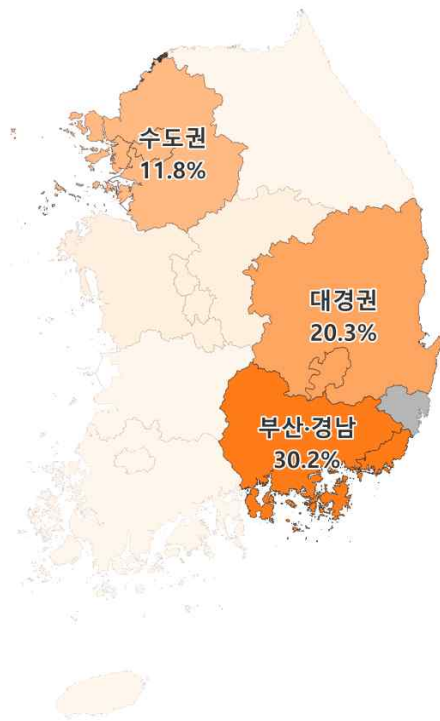
-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함
- 부산 대졸 청년의 70.1%는 부산 지역 대학을 진학하며, 29.9%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유출지는 수도권(9.7%), 동남권 내 타 시도(9.6%), 대경권(5.3%) 순임
 - 울산 대졸 청년의 32.9%는 울산 지역 대학을 진학하며, 67.1%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유출지는 동남권 내 타 시도(30.2%), 대경권(20.3%), 수도권(11.8%) 순임
 - 경남 대졸 청년의 41.7%는 경남 지역 대학을 진학하며, 58.3%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유출지는 동남권 내 타 시도(24.4%), 수도권(14.9%), 대경권(10.4%) 순임

[그림 II-2] 1차 유출 지역,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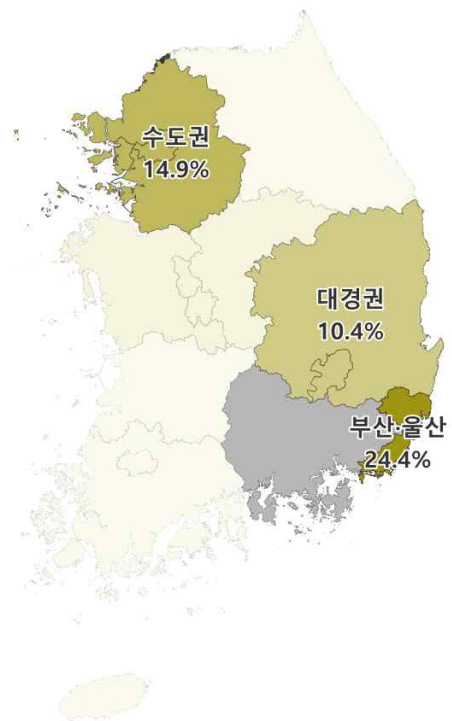


< 울산 >



- 1. 동남권 내 타 시도 : 30.2%
- 2. 대경권 : 20.3%
- 3. 수도권 : 11.8%

< 경남 >



- 1. 동남권 내 타 시도 : 24.4%
- 2. 수도권 : 14.9%
- 3. 대경권 : 10.4%

[표 II-2] 1차 유출 지역, 2020

(단위: %)

			대학 소재지								
			동남권			수도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	계
			부산	울산	경남						
고등학교 소재지	동 남 권	부산	70.1	2.2	7.4	9.7	5.3	3.3	1.2	0.8	100.0
		울산	24.3	32.9	5.9	11.8	20.3	3.7	0.4	0.7	100.0
		경남	22.6	1.8	41.7	14.9	10.4	4.3	3.7	0.4	100.0
	수도권		0.5	0.2	0.3	74.6	1.9	15.4	3.0	4.2	100.0
	대경권		4.2	1.5	1.1	10.7	75.5	5.3	0.7	0.8	100.0
	충청권		1.1	0.3	0.4	18.9	3.1	70.1	4.7	1.4	100.0
	호남권		1.3	0.1	1.1	14.6	2.1	6.3	74.3	0.2	100.0
	강원·제주		3.3	0.1	1.0	24.0	6.9	10.8	2.3	51.6	100.0
	계		7.9	1.5	4.1	41.1	12.6	17.4	11.0	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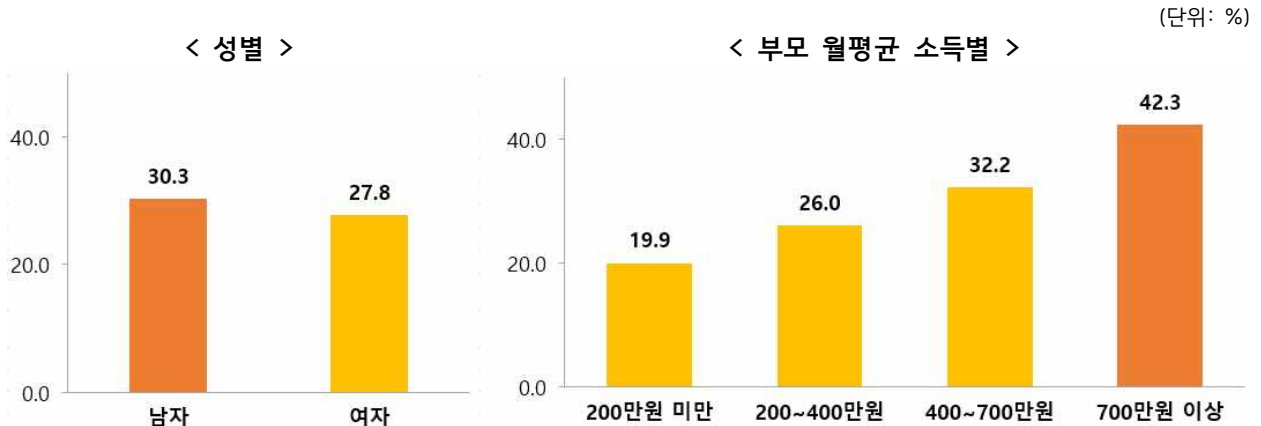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1-3. 1차 유출 집단 특성

동남권 청년 중 '남자', '특수목적고·자율고', '4년제 대학',
'부모가 고소득'일수록 1차 유출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

- 동남권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인구사회 특성별 1차 유출 비율을 보면,
- (성별) 남자 중 1차 유출된 청년의 비율은 30.3%로, 여자(27.8%)보다 유출 비율이 높음
 - (고교계열) 특수목적고·자율고(54.3%)가 일반계고(27.7%), 특성화고(18.7%)보다 유출 비율이 높음
 - (대학 유형) 4년제 대학(32.5%)이 2~3년제 대학(20.7%)보다 유출 비율이 높음
 - (부모 월평균 소득)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유출 비율이 높아짐

[그림 II-3] 1차 유출 집단 특성(유출 비율), 2020



[표 II-3] 1차 유출 집단 특성(유출 비율), 2020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계	타권역 대학 진학 집단 - 1차 유출 -	동남권 내 대학 진학 집단
전체		100.0	29.1	70.9
성별	남자	100.0	30.3	69.7
	여자	100.0	27.8	72.2
고교계열	일반계고	100.0	27.7	72.3
	특수목적고·자율고	100.0	54.3	45.7
	특성화고	100.0	18.7	81.3
대학 유형	2~3년제	100.0	20.7	79.3
	4년제(교육대 포함)	100.0	32.5	67.5
대학 입학당시 부모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00.0	19.9	80.1
	200~400만원 미만	100.0	26.0	74.0
	400~700만원 미만	100.0	32.2	67.8
	700만원 이상	100.0	42.3	57.7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 입학당시 부모 소득을 '모름'이라고 응답한 사람 제외

2. 취업 시기의 2차 유출

2-1. 2차 유출 규모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동남권 내 대학 졸업 후 취업 시기에 타권역으로 이동한 2차 유출자는 16,113명(25.1%)이며, 3명 중 2명은 수도권으로 유출됨

□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1차 유입자를 포함하여 동남권 내 대학 졸업 후 취업 시기에 타권역으로 이동한 2차 유출자는 16,113명(25.1%)임

- 지난 9년간 동남권 대졸 청년 중 21.4%는 타권역으로 2차 유출되며, 그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13.0%로 가장 많음
- 동남권에서 타권역으로 2차 유출된 청년 3명 중 2명은 수도권으로 이동함

[그림 II-4] 2차 유출 비율, 2012-2020

(단위: %)



[표 II-4] 2차 유출 규모, 2012-2020

(단위: 명, %)

기준연도 권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전체	62,048 (100.0)	64,899 (100.0)	63,939 (100.0)	65,782 (100.0)	67,666 (100.0)	75,056 (100.0)	72,902 (100.0)	67,629 (100.0)	64,290 (100.0)	604,211 (100.0)
동남권 내 잔류	45,109 (72.7)	54,706 (84.3)	54,310 (84.9)	43,462 (66.1)	55,630 (82.2)	62,632 (83.4)	59,087 (81.0)	51,866 (76.7)	48,177 (74.9)	474,979 (78.6)
타권역 이동 (2차 유출)	16,938 (27.3)	10,193 (15.7)	9,629 (15.1)	22,321 (33.9)	12,036 (17.8)	12,423 (16.6)	13,816 (19.0)	15,763 (23.3)	16,113 (25.1)	129,232 (21.4)
수도권	11,933 (19.2)	6,974 (10.7)	6,024 (9.4)	12,957 (19.7)	7,200 (10.6)	6,994 (9.3)	8,400 (11.5)	9,056 (13.4)	8,995 (14.0)	78,533 (13.0)
대경권	2,574 (4.1)	1,441 (2.2)	1,748 (2.7)	3,841 (5.8)	1,699 (2.5)	2,567 (3.4)	2,339 (3.2)	3,116 (4.6)	2,595 (4.0)	21,920 (3.6)
충청권	1,128 (1.8)	878 (1.4)	1,125 (1.8)	2,701 (4.1)	1,643 (2.4)	1,290 (1.7)	1,406 (1.9)	1,505 (2.2)	2,363 (3.7)	14,039 (2.3)
기타	1,303 (2.1)	900 (1.4)	732 (1.1)	2,821 (4.3)	1,493 (2.2)	1,573 (2.1)	1,670 (2.3)	2,086 (3.1)	2,159 (3.4)	14,737 (2.4)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각 연도

주) 2차 유출 비율 = (동남권 내 대학 졸업 후 A지역으로 이동한 학생 수) / (동남권 내 대학 졸업자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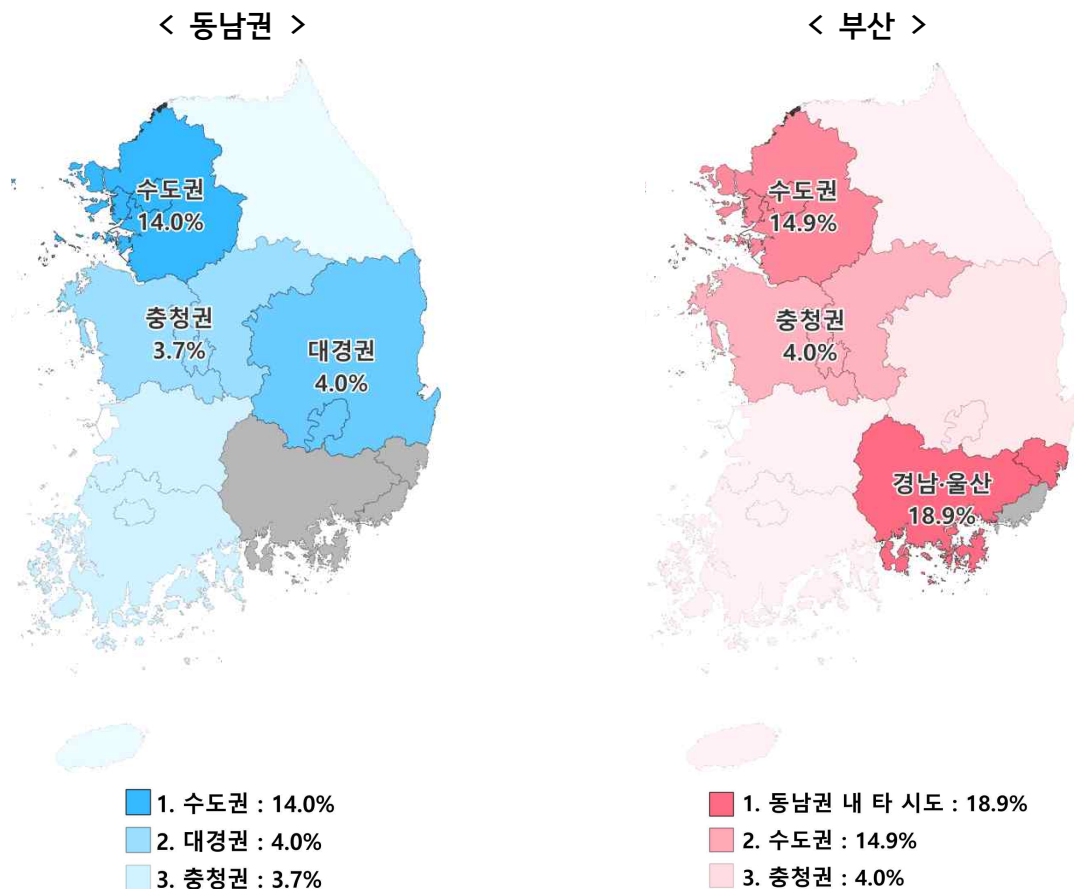
2-2. 2차 유출 지역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동남권 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취업 시기에
수도권(14.0%), 대경권(4.0%), 충청권(3.7%) 순으로 2차 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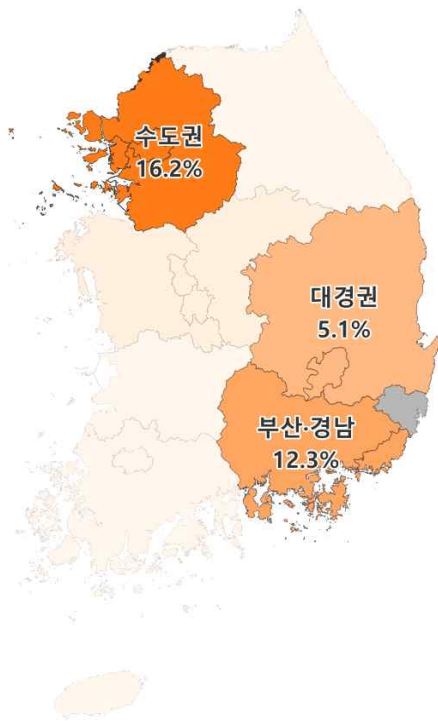
- 부산, 울산, 경남 모두 대학 졸업 후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으로 이동함
- 부산 대졸 청년의 55.1%는 부산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44.9%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유출지는 동남권 내 타 시도(18.9%), 수도권(14.9%), 충청권(4.0%) 순임
 - 울산 대졸 청년의 60.5%는 울산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39.5%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유출지는 수도권(16.2%), 동남권 내 타 시도(12.3%), 대경권(5.1%) 순임
 - 경남 대졸 청년의 61.9%는 경남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38.1%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유출지는 동남권 내 타 시도(15.6%), 수도권(11.4%), 대경권(4.3%) 순임

[그림 II -5] 2차 유출 지역,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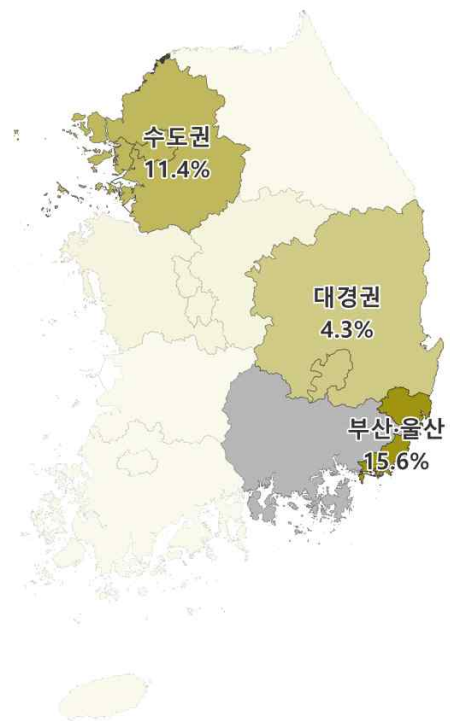


< 울산 >



- 1. 수도권 : 16.2%
- 2. 동남권 내 타 시도 : 12.3%
- 3. 대경권 : 5.1%

< 경남 >



- 1. 동남권 내 타 시도 : 15.6%
- 2. 수도권 : 11.4%
- 3. 대경권 : 4.3%

[표 II -5] 2차 유출 지역, 2020

(단위: %)

			현재 거주지								계
			동남권			수도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	
			부산	울산	경남						
대학 소재지	동 남 권	부산	55.1	5.9	13.0	14.9	3.7	4.0	1.7	1.7	100.0
		울산	7.3	60.5	5.0	16.2	5.1	3.7	1.2	0.9	100.0
		경남	12.8	2.8	61.9	11.4	4.3	3.1	3.0	0.8	100.0
	수도권		0.7	0.4	0.7	89.1	1.3	4.3	1.6	1.8	100.0
	대경권		2.8	2.6	3.0	17.9	65.3	5.0	1.3	2.0	100.0
	충청권		0.7	0.2	1.0	45.7	1.7	46.5	2.2	2.0	100.0
	호남권		0.6	0.1	1.4	20.5	0.6	5.9	69.7	1.2	100.0
	강원·제주		0.9	0.0	0.8	46.8	1.5	4.4	0.4	45.1	100.0
계			5.9	2.0	4.7	53.1	9.8	11.8	9.1	3.6	100.0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2-3. 2차 유출 집단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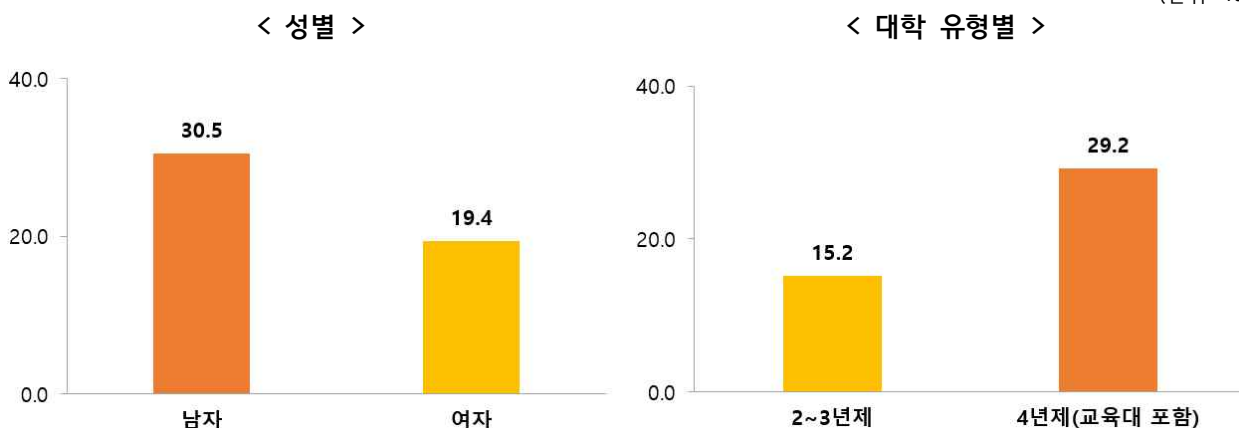
동남권 청년 중 '남자', '4년제 대학', '국공립 대학', '취업자'일수록

2차 유출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

- 동남권 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인구사회 특성별 2차 유출 비율을 보면,
- (성별) 남자 중 2차 유출된 청년의 비율은 30.5%로, 여자(19.4%)보다 유출 비율이 높음
 - (대학 유형1) 4년제 대학(29.2%)이 2~3년제 대학(15.2%)보다 유출 비율이 높음
 - (대학 유형2) 국공립 대학(31.0%)이 사립 대학(21.6%)보다 유출 비율이 높음
 - (취업 여부) 취업자(28.2%)가 비취업자(18.9%)보다 유출 비율이 높음

[그림 II-6] 2차 유출 집단 특성(유출 비율), 2020

(단위: %)



[표 II-6] 2차 유출 집단 특성(유출 비율), 2020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계	동남권 대학 졸업 후 타권역 유출 집단 - 2차 유출 -	동남권에 남아있는 집단
전체		100.0	25.1	74.9
성별	남자	100.0	30.5	69.5
	여자	100.0	19.4	80.6
대학 유형1	2~3년제	100.0	15.2	84.8
	4년제(교육대 포함)	100.0	29.2	70.8
대학 유형2	국공립	100.0	31.0	69.0
	사립	100.0	21.6	78.4
취업 여부	취업자	100.0	28.2	71.8
	비취업자	100.0	18.9	81.1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동남권 청년 중 취업자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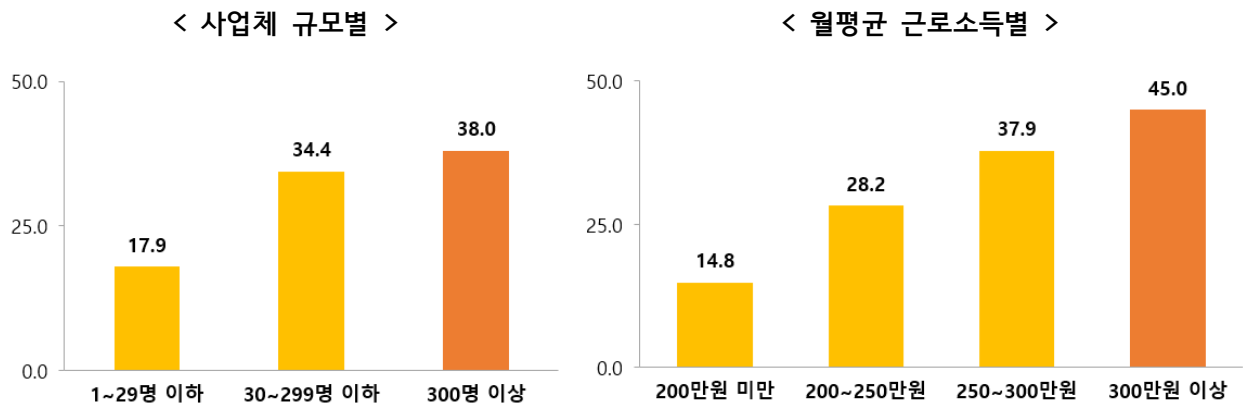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2차 유출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

□ 동남권 청년 중 취업자의 인구·사회 특성별 2차 유출 비율을 보면,

-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유출 비율이 높아짐
- (월평균 근로소득) 소득이 높을수록 유출 비율이 높아짐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28.5%)가 비임금근로자(16.2%)보다 유출 비율이 높음

[그림 II-7] 2차 유출 집단 취업자 특성(유출 비율), 2020

(단위: %)



[표 II-7] 2차 유출 집단 취업자 특성(유출 비율), 2020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계	2차 유출 집단 중 취업자	동남권에 남아있는 집단 중 취업자
취업자		100.0	28.2	71.8
사업체 규모	1~29명 이하	100.0	17.9	82.1
	30~299명 이하	100.0	34.4	65.6
	300명 이상	100.0	38.0	62.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원 미만	100.0	14.8	85.2
	200~250만원 미만	100.0	28.2	71.8
	250~300만원 미만	100.0	37.9	62.1
	300만원 이상	100.0	45.0	55.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	100.0	28.5	71.5
	상용	100.0	29.9	70.1
	임시·일용	100.0	20.6	79.4
	비임금근로	100.0	16.2	83.8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3. 1차 유출자의 역내 회귀

3-1. 회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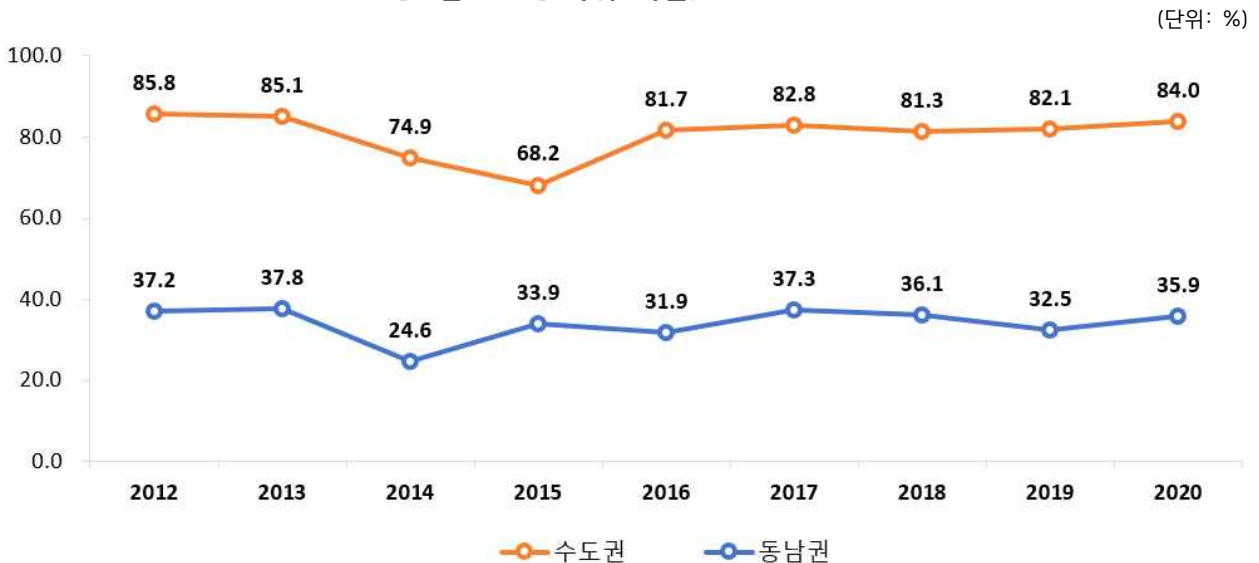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동남권에서 1차 유출된 청년이 타권역 대학을 졸업 후 동남권으로 회귀하는 비율은 35.9%에 그치는 반면, 수도권은 84.0%에 달함

□ '20년 기준 대졸 청년 중 동남권에서 1차 유출된 청년이 타권역 대학을 졸업 후 동남권으로 회귀하는 비율은 35.9%에 그치는 반면, 수도권은 84.0%에 달함

○ 동남권 1차 유출자의 역내 회귀 비율은 울산(42.5%), 부산(40.1%), 경남(34.9%) 순임

□ '12~'20년 기준 대졸 청년 회귀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동남권은 수도권보다 꾸준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II-8] 회귀 비율, 2012-2020



[표 II-8] 회귀 비율, 2012-2020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도권	85.8	85.1	74.9	68.2	81.7	82.8	81.3	82.1	84.0
동남권	37.2	37.8	24.6	33.9	31.9	37.3	36.1	32.5	35.9
부산	36.1	40.0	24.5	35.3	36.7	40.5	35.4	34.7	40.1
울산	42.3	54.8	42.6	40.7	43.7	46.7	49.0	39.3	42.5
경남	38.9	43.1	31.5	27.5	39.0	41.1	42.7	34.6	34.9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각 연도

주) 회귀 비율 = (A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의 대학을 진학한 학생 중, 졸업 후 다시 A지역으로 회귀한 졸업자 수) / (A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의 대학을 진학한 학생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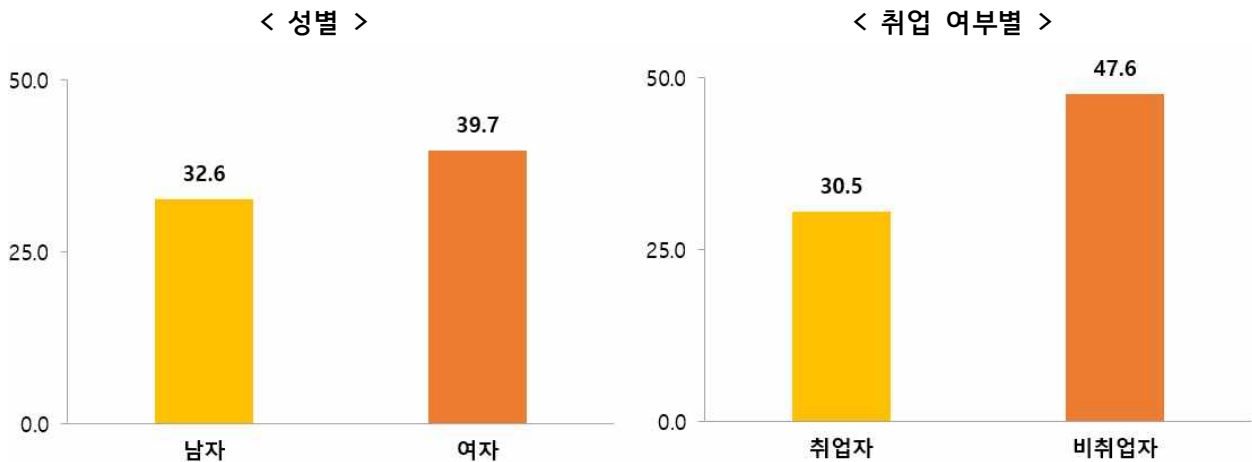
3-2. 회귀 집단 특성

1차 유출자 중 동남권으로 회귀한 청년의 특성을 보면,
 '여자', '2~3년제 대학', '국공립 대학', '비취업자'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

- 1차 유출된 청년의 인구·사회 특성별 동남권 회귀 비율을 보면,
- (성별) 여자 중 회귀한 청년의 비율은 39.7%로, 남자(32.6%)보다 회귀 비율이 높음
 - (대학 유형1) 2~3년제 대학(42.6%)이 4년제 대학(34.2%)보다 회귀 비율이 높음
 - (대학 유형2) 국공립 대학(39.5%)이 사립 대학(35.3%)보다 회귀 비율이 높음
 - (취업 여부) 비취업자(47.6%)가 취업자(30.5%)보다 회귀 비율이 높음

[그림 II-9] 동남권 회귀 집단 특성(회귀 비율), 2020

(단위: %)



[표 II-9] 동남권 회귀 집단 특성(회귀 비율), 2020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계	동남권 회귀 집단	회귀하지 않은 집단
전체		100.0	35.9	64.1
성별	남자	100.0	32.6	67.4
	여자	100.0	39.7	60.3
대학 유형1	2~3년제	100.0	42.6	57.4
	4년제(교육대 포함)	100.0	34.2	65.8
대학 유형2	국공립	100.0	39.5	60.5
	사립	100.0	35.3	64.7
취업 여부	취업자	100.0	30.5	69.5
	비취업자	100.0	47.6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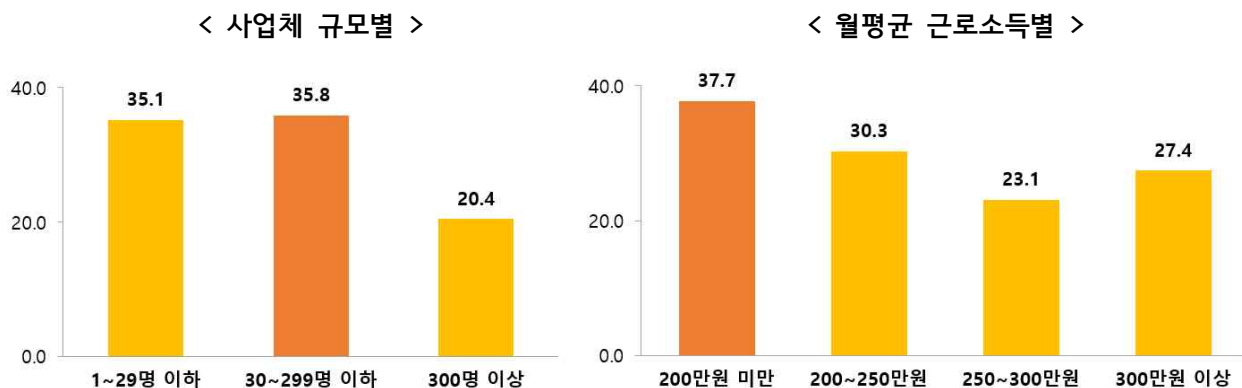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1차 유출자 중 동남권으로 회귀해서 취업한 청년의 특성을 보면,
 '사업체 규모 30~299명 이하',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원 미만'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

- 1차 유출된 청년 중 취업자의 인구사회 특성별 동남권 회귀 비율을 보면,
- (사업체 규모) 30~299명 이하(35.8%) 구간의 회귀 비율이 가장 높음
 -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원 미만(37.7%) 구간의 회귀 비율이 가장 높음
 -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41.3%)가 임금근로자(30.0%)보다 회귀 비율이 높음

[그림 II-10] 동남권 회귀 집단 취업자 특성(회귀 비율), 2020

(단위: %)



[표 II-10] 동남권 회귀 집단 취업자 특성(회귀 비율), 2020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계	동남권 회귀 집단 중 취업자	회귀하지 않은 집단 중 취업자
취업자		100.0	30.5	69.5
사업체 규모	1~29명 이하	100.0	35.1	64.9
	30~299명 이하	100.0	35.8	64.2
	300명 이상	100.0	20.4	79.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원 미만	100.0	37.7	62.3
	200~250만원 미만	100.0	30.3	69.7
	250~300만원 미만	100.0	23.1	76.9
	300만원 이상	100.0	27.4	72.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	100.0	30.0	70.0
	상용	100.0	28.9	71.1
	임시·일용	100.0	36.1	63.9
	비임금근로	100.0	41.3	58.7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Ⅲ. 동남권 청년의 향후 이주 의사

1. 이주계획 여부 및 이주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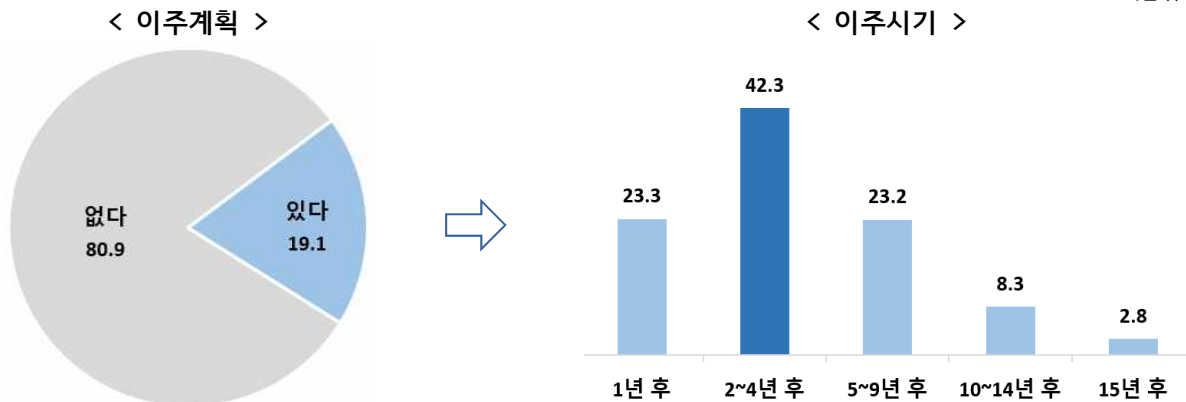
동남권 청년의 5명 중 1명은 이주계획이 있으며,

‘2~4년 후’에 이주하려는 청년이 42.3%로 가장 많음

- '22년 동남권 청년의 19.1%는 이주계획이 있으며, '2~4년 후'에 이주하려는 청년이 42.3%로 가장 많음
- 이주계획이 있는 청년의 비율을 보면 지역별로는 경남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 정도는 대학 재학·휴학인 경우에 타 시도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강함

[그림 Ⅲ-1] 이주계획 여부 및 이주시기, 2022

(단위: %)



[표 Ⅲ-1] 이주계획 여부 및 이주시기, 2022

(단위: %)

		계	있다	이주시기						없다
				소계	1년 후	2~4년 후	5~9년 후	10~14년 후	15년 후	
동남권		100.0	19.1	100.0	23.3	42.3	23.2	8.3	2.8	80.9
지역별	부산	100.0	17.4	100.0	26.4	35.1	25.8	8.7	4.1	82.6
	울산*	100.0	12.8	100.0	10.4	43.1	14.7	20.0	11.9	87.2
	경남	100.0	23.3	100.0	23.5	48.1	22.8	5.7	0.0	76.7
성별	남자	100.0	19.4	100.0	22.8	42.7	23.4	8.2	2.8	80.6
	여자	100.0	18.8	100.0	23.9	41.8	23.0	8.5	2.9	81.2
연령별	19~24세	100.0	27.8	100.0	20.0	49.9	23.5	5.6	0.9	72.2
	25~29세	100.0	20.6	100.0	29.2	40.8	23.0	5.6	1.4	79.4
	30~34세	100.0	14.6	100.0	24.8	38.9	23.0	10.0	3.3	85.4
	35~39세	100.0	13.1	100.0	19.9	32.3	23.0	16.3	8.4	86.9
교육정도·노년	고졸 이하	100.0	15.5	100.0	20.1	42.4	22.3	11.7	3.5	84.5
	대학 재학·휴학	100.0	30.7	100.0	17.3	51.5	25.8	4.5	0.9	69.3
	대졸 이상	100.0	17.3	100.0	27.2	38.0	22.3	9.0	3.5	82.7

출처: 「부산, 울산, 경남 사회조사(2022)」

주1) 울산의 경우,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 제외

주2) 이동을 '타 시도로의 이동'으로 정의함. 이주 희망지역이 시도 내인 사람은 '이주 의사가 없음'으로 분류함.

2. 이주 희망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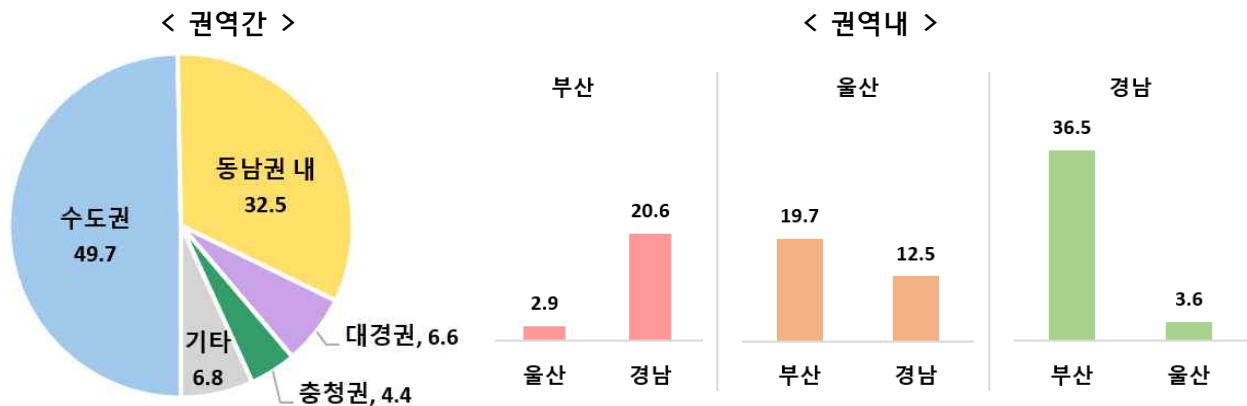
동남권 청년이 이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수도권(49.7%)이 가장 많고, 동남권 내(32.5%), 대경권(6.6%) 순임

- 동남권 청년이 이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수도권(49.7%)이 가장 많고, 동남권 내(32.5%), 대경권(6.6%) 순임
 - 동남권 내에서는 경남에서 부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36.5%로 가장 높음
- (연령별)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으로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동남권 내로 이주하려는 비율이 높음
- (교육정도별)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 중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의 65.3%는 수도권으로 이주를 희망함

[그림 Ⅲ-2] 이주 희망지역, 2022

(단위: %)



[표 Ⅲ-2] 이주 희망지역, 2022

(단위: %)

		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도	제주도	해외
동남권		100.0	32.5	20.0	2.9	9.6	49.7	4.4	1.9	6.6	1.5	2.2	1.3
지역별	부산	100.0	23.5	-	2.9	20.6	64.2	3.2	1.7	3.8	1.4	2.1	0.3
	울산	100.0	32.1	19.7	-	12.5	31.1	5.3	3.6	16.4	1.8	5.3	4.4
	경남	100.0	40.1	36.5	3.6	-	41.5	5.2	1.8	6.9	1.5	1.5	1.5
성별	남자	100.0	32.8	20.1	2.7	10.0	48.8	5.2	1.6	6.7	1.4	2.3	1.2
	여자	100.0	32.3	19.9	3.2	9.2	50.7	3.4	2.3	6.4	1.5	2.0	1.4
연령별	19~24세	100.0	25.6	18.3	2.3	5.0	60.2	3.7	1.1	5.9	0.5	1.0	1.9
	25~29세	100.0	34.1	20.5	3.1	10.5	51.7	4.1	0.9	6.1	0.8	2.1	0.2
	30~34세	100.0	34.5	18.5	2.7	13.2	46.0	4.4	3.7	5.0	3.2	1.9	1.5
	35~39세	100.0	42.3	23.9	4.1	14.3	28.9	6.2	3.6	10.1	2.8	4.7	1.5
교육정도별	고졸 이하	100.0	42.4	26.4	3.4	12.6	36.5	5.5	2.0	7.9	2.2	1.3	2.3
	대학 재학·휴학	100.0	21.6	13.8	2.2	5.5	65.3	2.8	0.6	6.4	1.2	1.1	1.0
	대졸 이상	100.0	34.5	20.8	3.1	10.5	46.6	4.7	2.5	6.2	1.4	2.9	1.1

출처: 「부산, 울산, 경남 사회조사(2022)」

주1) 이동을 '타 시도로의 이동'으로 정의함. 이주 희망지역이 시도 내인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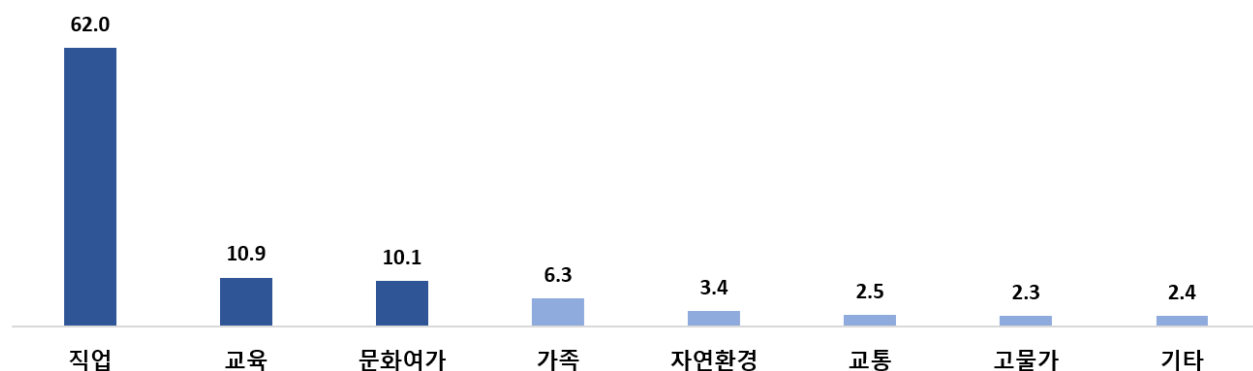
3. 이주하려는 이유

이주 의사가 있는 동남권 청년이 타 시도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대부분이 **직업(62.0%)** 때문이고, 다음으로 **교육(10.9%)**, **문화여가(10.1%)** 순임

- ☐ 이주 의사가 있는 동남권 청년 중 직업을 이유로 이주하려는 청년이 6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10.9%), 문화여가(10.1%) 순임
- ☐ (성별) 직업의 비율은 남자(67.2%)가 여자(56.0%)보다 높고, 교육 및 문화여가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음
- ☐ (연령별) 직업의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교육의 비율은 19~24세, 35~39세 구간에서 높음

[그림 Ⅲ-3] 이주하려는 이유, 2022

(단위: %)



[표 Ⅲ-3] 이주하려는 이유, 2022

(단위: %)

		계	직업	교육	교통	자연환경	문화여가	고물가	가족친구	기타
동남권		100.0	62.0	10.9	2.5	3.4	10.1	2.3	6.3	2.4
지역별	부산	100.0	68.1	10.2	0.9	4.3	4.6	2.6	6.7	2.5
	울산	100.0	40.9	7.8	3.4	7.6	15.5	7.5	12.8	4.6
	경남	100.0	61.3	12.0	3.6	1.8	13.6	1.0	4.6	1.9
성별	남자	100.0	67.2	9.4	2.1	3.2	7.7	2.4	5.7	2.2
	여자	100.0	56.0	12.6	3.0	3.7	13.0	2.2	7.0	2.7
연령별	19~24세	100.0	69.9	12.3	1.9	1.2	8.5	0.7	4.3	1.3
	25~29세	100.0	67.3	7.0	2.1	1.8	12.3	2.6	5.2	1.7
	30~34세	100.0	58.5	8.6	3.3	3.0	10.2	4.5	8.2	3.8
	35~39세	100.0	41.7	16.0	3.6	10.7	10.3	3.1	10.0	4.6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100.0	55.0	12.5	1.9	3.8	14.5	5.2	3.7	3.5
	대학 재학·휴학	100.0	73.7	12.6	1.3	1.1	4.7	0.9	4.5	1.1
	대졸 이상	100.0	58.8	9.5	3.3	4.4	11.3	2.0	7.9	2.7

출처: 「부산, 울산, 경남 사회조사(2022)」

주1) 이동을 '타 시도로의 이동'으로 정의함. 이주 희망지역이 시도 내인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

4. 현재 시도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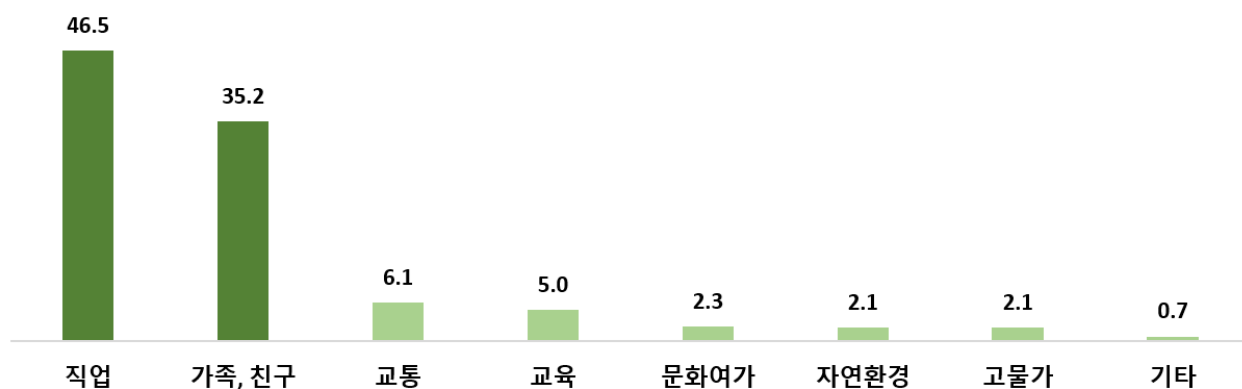
이주 의사가 없는 동남권 청년이 현재 시도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도

직업(46.5%)이 가장 중요했고, 이주 이유와는 달리 가족·친구(35.2%)가 높게 나타남

- ☐ 이주 의사가 없는 동남권 청년이 현재 시도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는 직업(46.5%), 가족·친구(35.2%)가 대부분임
- ☐ (성별) 직업의 비율은 남자(50.6%)가 여자(41.9%)보다 높고, 가족·친구의 비율은 여자(40.5%)가 남자(30.4%)보다 높음
- ☐ (연령별) 직업의 비율은 30~39세가 19~29세보다 높고, 가족·친구의 비율은 19~29세가 30~39세보다 높음

[그림 Ⅲ-4] 현재 시도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2022

(단위: %)



[표 Ⅲ-4] 현재 시도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2022

(단위: %)

		계	직업	교육	교통	자연환경	문화여가	고물가	가족·친구	기타
동남권		100.0	46.5	5.0	6.1	2.1	2.3	2.1	35.2	0.7
지역별	부산	100.0	46.1	5.9	5.9	0.9	2.1	1.4	37.1	0.5
	울산	100.0	43.7	4.1	8.0	3.1	2.5	1.8	35.2	1.7
	경남	100.0	48.1	4.3	5.7	3.2	2.4	3.0	32.7	0.5
성별	남자	100.0	50.6	5.1	7.0	2.2	2.1	2.0	30.4	0.6
	여자	100.0	41.9	5.0	5.2	2.0	2.6	2.2	40.5	0.7
연령별	19~24세	100.0	28.0	9.3	12.6	2.0	1.7	2.0	43.9	0.5
	25~29세	100.0	49.4	3.5	5.0	1.9	2.0	2.1	35.6	0.4
	30~34세	100.0	55.0	2.9	3.7	1.9	2.8	1.8	31.1	0.9
	35~39세	100.0	51.7	4.7	4.0	2.6	2.7	2.3	31.2	0.8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100.0	43.7	3.7	4.5	2.2	2.4	3.6	39.0	0.9
	대학 재학·휴학	100.0	19.7	12.6	18.1	2.1	2.2	1.6	43.3	0.5
	대졸 이상	100.0	53.6	3.8	4.0	2.1	2.3	1.6	31.9	0.6

출처: 「부산, 울산, 경남 사회조사(2022)」